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의 후계구축과 위기심화

2008년 여름에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후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졌다.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를 운영하는 '수령제' 국가에서 지도자의 건강변수는 국내외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후계를 지명한 1974년 2월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은 편이었고 김일성이 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고 '선군정치'에 따른 군부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좋았을 때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후계세대를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준비된 후계세대에 후계자를 핵으로 집어넣으면 곧바로 후계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후계를 준비해오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후계구축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를 본격화하지 않은 것은 체제위기 심화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가능성, 후계지명 이후 권력의 급격한 이동과 권력투쟁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겪으면서 후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지도부가 김정은 후계지명을 가시화한 데는 지도자의 유고를 곧바로 정권과 체제붕괴로 등치시키려는 외부세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1월 북한지도부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김정일 건강악화에 따른 급변사태론의 재부각 등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보인다. 북한지도부는 후계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갑작스런 건강악화나 유고에 대비함으로써 김정일 이후 북한이 큰 혼란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외부세계에 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새로 발행한 화폐의 도안을 보면 만경대, 백두산, 김일성-김정일 가계와 관련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를 통해서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후계와 연관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화폐개혁은 김정은 후계를 위한 '경제적 친위쿠데타'로 볼 수 있다. 신흥상인계급(시장세력 또는 '돈주')이 상층 지배계층과 결탁할 경우 후계구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 단행한 화폐개혁과 외환통제 조치를 주도한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철직된 가장 큰 원인은 시장경제가 북한의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부문에까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3대 세습을 '관습헌법'처럼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3대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부자승계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된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대타협을 통한 경제재건이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건강악화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조급해진 것도 후계구축을 위한 환경정비차원의 '속도전'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북미 적대관계 해소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후계체제가 공고화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후계정비차원에서 서방과의 대타협전략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불거지고 후계문제가 가시화됨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후계변수가 한반도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후계 변수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남북관계 원상회복 못지않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했다.

사부대중 칼럼

강호진
작가

소유와 무소유 흘려보내기

근래 법정스님의 열반으로 인해 스님의 책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스님은 유언을 통해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남겼다. 스님의 유언은 출판사뿐 아니라 스님의 글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출판업계는 스님의 뜻을 존중해 책을 절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독자들은 스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스님의 책이 계속 출간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님의 맑은 향취가 배어있는 글을 읽으며 삶을 돌아보고 무소유의 정신을 배우겠다는 독자들의 선한 의지를 나무라긴 어렵다. 20대 초반 무렵, 법정스님의 글을 통해 출렁거리는 청춘을 찬찬히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나로서도 스님의 책이 계속 출간되기를 원하는 독자들 편에 서고 싶다.

그러나 스님의 책과 관련해 출판계나 독자들 사이에 벌어진 그간의 일들을 살피다 보면 이렇듯 순수한 마음으로만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다. 절판 합의를 하기 전까지 출판계는 독자들을 위해 스님의 책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버텼지만, 그 이면에는 불티나게 팔리는 책을 돌연 접어야하는 억울함이 스며있었고, 서점에 들러 스님의 책을 수십 권씩 사가거나 웃돈을 주고서라도 책장에 꽂아두길 원하는 독자들의 행동에선, 스님의 글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보다 절판을 앞두고 희귀해질 물건을 선점하려는 욕망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어느 경매 사이트에선 <무소유> 한 권을 두고 9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선 이도 있고, 21억이라는 입찰가를 써낸 사람도 있다고 하니, 비록 치기어린 장난이라 하더라도 스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쓴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과열현상은 '무소유'란 말이 지닌 애매모호함에도 다소나마 원인이 있다. 법정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하고 말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스님의 입적이나 절판 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스님의 책 한두 권을 지니려는 마음은 아마도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의 범주에 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의 입적 후에는 마치 책이 스님의 사리라도 되듯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책을 소유하지 못해 안달이다. 지인에게 빌려주고는 잊고 살았던 책을 부랴부랴 회수하기 위해 전화로 닦달하고,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법정스님의 책을 자신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곤혹스럽다. 자발적 가난과 수행승의 꼿꼿함을 담은 스님의 책조차도 세상의 떠도는 무수한 욕망 중에 하나로 편입되어 버린 것일까? 존재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양상이 항시 변하는 법이니 스님의 책이라고 이를 비켜갈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붙잡아둘 욕심이 없었기에 향기로웠고 가두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다가왔던 스님의 말과 글이 스님의 육신의 소멸과 더불어 오로지 책이라는 틀 속에 갇혀 거대한 물신(物神)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스님이 전하려 했던 청빈의 정신과 탈속의 뜻은 희미해지고 오로지 몇 백 그램의 무게로, 몇 푼의 돈으로 환산된 종이뭉치만 스님의 이름을 달고 세상을 활보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과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은 양 극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유신론으로 귀결된다. 스님이 '무소유'란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어디까지가 '소유'이고 어디까지가 '무소유'인지의 경계 긋기가 아니라, 소유라는 욕망의 굴레에서 홀쩍 벗어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유신론자의 가장 큰 적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듯,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소유'의 철학을 담고 있는 스님의 책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 설

'봉은사 직영' 재논의해야 한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면서 촉발된 조계종 내 분란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재단이 나선 데 이어 원로회의 의장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이번 사태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압력성 발언, 봉은사 직영 지정의 타당성, 명진스님의 폭로성 발언 등 세 가지가 쟁점이다.

안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명진 스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과천 복지관 개관 행사에 함께 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뢰를 잃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1억 원을 건네며 위로한 명진 스님을 모른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문제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김영국씨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외압이었다고 증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안 원내대표의 문제의 발언이 없었다고 부정하지 않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영 지정 과정에서 대화 부족을 인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 12개 불교단체가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것이 타당했느냐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 주장에 우리는 공감한다. 직영사찰 지정 목적이 며칠 사이에 총무원 재정 확보에서 수도권 남북포교벨트 구축이라며 왔다갔다 했다. 그러다보니 총무원이 내세우는 목적보다는 다른 데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설령 목적에 동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것 말고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봉은사는 물론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서둘렀는지 의문이다. 애초 함께 직영사찰 지정을 추진했던 도선사는 돌연 제외했는데, 해당 사찰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빠지는 것인지 등 직영사찰 지정과 관련한 의문들이 너무 많다.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쳤으므로 합법적종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 형식논리에 갇히고 만다.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타당성마저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 이번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이다.

명진 스님은 폭로성 행보를 멈춰야 한다. 명진 스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외면받는다. 봉은사 직영 사찰 지정의 타당성을 따지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 마당을 통해 주장을 펼치기를 바란다. 중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마침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과정에서 대화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봉은사 직영 지정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총무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봉은사의 직영사찰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다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